

하루를 시작하며



이종실 사단법인 제주어보존회 상임이사

제주어 보전 환경이 많이 나아졌다. 제주어의 사용과 교육에 대한 환경도 좋아졌고, 제주어 사용에 관심을 둔 모임과 보전을 위한 단체들도 꽤 된다. 언어의 보전은 '고광 소금'에 잘 보관해 두는 게 아니라 드러내서 자주 사용하는 것이기에, 말로든 글로든 많이 접할수록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제주어를 접하면서, 표현과 표기의 실수나 오류가 흔해지며 통째로 사라지고 공유 확산되고 있다.

제주어의 보전과 표기에 대한 유감(有感)

이 걱정스럽다. 일반 사용자들의 경우 제주어를 쓰면서 다소 실수나 오류를 범하는 것이 당연할 수 있다. 하지만, 제주어 관련 행정부서가 감수했을 공공장소의 광고물에서, 제주어 보전을 선도(先導)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주관한 공모전의 작품을 포함해 기타 관련 결과물에서, 실수든 오류든 잘못된 표기가 꽤 많이 나타나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필자가 오류로 보는 현상은 크게 세 가지다. 'ㅁ'모음의 무분별한 사용, 음성을 그대로 옮긴 경우, 표준어와 혼용하거나 말도 표기도 틀린 경우 등이다. '죽다(기록하다)'와 '죽다(작다/적다)'를 구분하지 않고, '뽕나무(뽕나무)'를 '뽕나무'이라 잘못 쓰는 게 흔한 예다. 어느 공공장소 광고물에, '뽕! 여기 예~ 담배 피우면 안돼는 디우다. 뽕! 하영 내어마썸!'이 보인다. 이는, '뽕! 이

단(양) 담배 피우면 안돼는 디우다. 뽕! 하영 내어마썸!'이라야 맞다. 또, 제주어 관련 공모전 상위입상 작품들에서조차, '내가 골민 아라드러지긴 허겠니?'나 '흔저 도로라.' 류(類)의 표현이 보인다. 이는 '나가 골(으)민 알아들어지긴 허커냐?'와 '흔저 도로라.'라야 맞는 말이다. 표준어 사용에서도 실수나 오류는 있을 수 있기에 제주어 사용의 완벽을 기대하진 않지만, 영향력 있는 분이 쓴 제주어 글들까지도 적지 않은 오류들을 지니고 있는 것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제주어의 말하기 환경과 외연의 확대를 위해서는 소리 나는 대로 말하는 것만으로도 괜찮을지 모르지만, 보전과 전승을 위해서는 표기법이 잘 지켜져야만 한다. 선도층이 만든 광고나 안내에 오류가 많거나, 제주어 관련 공모전에서 오류가 많은 작품이

우수작이 되는 일은 지양돼야 한다. 행정은 관리 감독에 더 유의하고, 문학과 관련 분야에서는 표현과 작품의 파급력을 생각해 바르게 표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며, 제주어 관련 공모전의 심사에서는 문장력이나 잘못 쓰는 점수율보다는 표기의 구사력을 우선해야 할 것이다. 제주어의 바른 표기는 행정과 제주어 관련 단체들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 지역어의 생존 바탕이 다양성 존중이지만 이런 논리로 그 표기법조차 다양성으로 치부해서 오류를 방치하고 조장하는 것은 행정이나 제주어의 선도층으로서 무책임한 일이다. 만약 이런 환경이 지속된다면, 점차 새로이 제주어와 관련하여 사전이 편찬되고 표기법이 제정되더라도 지켜지거나 보장도 없고 제주어의 바람직한 보전을 더 이상 바랄 수 없기 때문이다.

사설

갈등·어려움 외면한 새해 예산 편성·심의

논란 끝에 5조8229억 원 규모의 2020년도 제주도 예산안이 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도의회는 16일 본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편성한 예산안에서 최종 393억1026만 원을 삭감 조정된 수정예산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이번 예산 정국은 여러모로 아쉬움을 주고 있습니다. 관심사였던 제2공항 갈등해소 방안 연구조사 비용(2억 원)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끝내 '부동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원지사가 제2공항 관련 도의회 특위에 보였던 입장을 감안하면 충분히 예견됐던 일입니다. 이는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가 구상한 특위의 존재를 무시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도의회와의 소모적인 갈등이 지속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산안은 도민의 생활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큼니다. 새해 도정의 지향점을 가늠하는 방향타 역할을 합니다. 재

정분배와 확장정책을 통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에 큰 파급효과를 미치게 됩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어려움을 겪는 제주경제에 마중물 역할을 해야하는 이유입니다. 특히 제주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1차산업과 관련해서 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1차산업은 심각합니다. 감곡을 비롯한 농산물값 하락과 농가부채 증가 등 이중삼중의 어려움이 큼니다. 제주도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1차산업 예산 비중은 매년 하락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농림해양수산 예산 비중이 2014년 12.7%에서 올해 10.1%에 이르는 10%대마저 무너졌다고 비판했습니다. 말로는 1차산업 중요성을 외치면서도 그뿐입니다. 그러면서 의원들은 자기 사임비는 챙기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제주도 생활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큼니다. 새해 도정의 지향점을 가늠하는 방향타 역할을 합니다. 재

열린마당

청렴을 마음에 새기며 공직생활을 시작하다



한지혜 서귀포시 세무과

공무원으로서 지녀야 할 가치 중 무엇보다 우선 되는 것은 청렴이라 생각한다. 공직 생활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라면 '청렴'이라는 단어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보았을 것이다. 청렴은 공무원의 6대 의무 중 하나로, 공무원 헌장에도 청렴에 대한 문구들이 언급돼 있듯이 공직 생활에서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고 있다. 신규 공무원들이라면 면접을 준비할 때부터 공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대부분 '청렴'을 생각했을 것이다. 물론 필자 또한 그렇다. '청렴'의 사전적 의미는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는 것으로 정의된다. 성품과 행실이 높고, 탐욕이 없는 것이 왜 공무원에게 중요

할까? 본질적으로 접근하면 공무원들은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 일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더욱더 부패하지 않고 공정하게 행동하기 위해 청렴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청렴한 공무원이 되기 위해 어떤 것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았다. 현대 사회가 급속하게 변화하면서 민원인들의 요구는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우리 공무원들은 다양한 민원에도 친절할 응대와 적극적인 행정 처리를 통해 지역주민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어떠한 일에도 대가를 받지 않고 공정하게 일을 완수해 지역 주민들에게 청렴의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심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필자는 공직 생활을 시작하는 출발점에 서있는 지금, 청렴한 공무원이 되기 위해 다짐한 것이 있다. 바로 '공정함'과 '친절'이다. 매일 민원인들을 마주하면서 일하는 자리인 만큼 공정하게 친절할 태도로 민원인들과 소통하는 공무원이 될 것이다. 어느 한쪽에 기울지 않고, 민원인을 응대할 수 있는 청렴한 공무원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

\* '오피니언' 편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일자리 해결 성과... 고용상황 변수

고용서비스 확대 '성과'

○...제주도 고용센터가 고용서비스의 질과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고용서비스를 확대 발굴한 결과 올 11월말까지 50% 이상의 취업률을 기록했다고 발표. 제주도는 실업급여 수급자 및 취약계층, 기업에 대한 취업지원 기능 강화는 물론 온오프라인의 일자리에 대한 정보제공과 알선 기회 확대 등을 일자리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노력의 결과로 자평. 제주도는 '제주일자리포털'을 내년 1월부터 본격 운영하는 등 양질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지만 경기침체 등 어려운 고용상황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조상윤기자

서귀포시, 재난안전 우수기관

○...서귀포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19년 재난관리자원 운영 실태 점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 서귀포시는 올해 2019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결과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데 이어

이번 평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재난안전 분야의 향상된 역량을 전국에 검증. 한홍식 서귀포시 안전총괄과장은 "재난관리 대응역량을 더욱 향상시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 이태윤기자

일도1동 대형 트리 화제

○...제주시 일도1동 주민센터 앞 100여년 된 은행나무를 대형 크리스마스트리로 변모시켜 화제. 일도1동 주민센터는 연말연시를 맞아 성탄절 의미를 되새기고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축복과 사랑을 기원하며 겨자년에는 꿈과 희망으로 새해를 맞이하길 바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은행나무를 크리스마스트리로 꾸며. 김명석 일도1동장은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대형 트리를 통해 연말연시를 맞아 올 한해를 되돌아보면서 따뜻한 연말을 보내고 내년에는 희망찬 새해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희망. 고대모기자

'마음의 병' 시달리는 아이들 의외로 많다

우리나라 10대 청소년의 사망 원인이 1위가 자살이라고 합니다. 이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동남들의 '마음의 병'이 예사로 볼 수 없습니다. 제주지역도 예외가 아닙니다. 올해 제주에서도 다섯명의 학생이 목숨을 끊었습니다. 정신적 고통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자기 몸에 상처를 내는 학생도 늘어 나고 있어 실로 충격적입니다.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정서행동특성검사를 받은 도내 학생 2만6372명 중 1326명(5.0%)이 관심군이었습니다. 최근 3년간 매년 5% 정도의 학생이 관심군으로 분류돼 상담·치료 등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원인은 학업 부담, 학교 부적응, 친구 관계, 가정 문제 등 다양합니다. 문제는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많은 학생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내 관심군 학생 10명 중 1명꼴입니다. 올해 정서행동특성검사서 관심군으

로 분류된 학생 1326명의 88%(1167명)만이 전문기관과 연계한 심층평가 등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2차 조치를 받은 학생 비중은 2017년 73%, 2018년 81%로 점차 늘고 있지만 여전히 10% 이상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음의 건강에 빨간불이 켜진 아이들이 의외로 많습다.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이 아픈 속을 드러내지 않으면 이를 발견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데 있습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와 중앙심리부검센터가 2015~2017년 자살자 289명의 심리 부검 결과에서 도 주의 깊은 관찰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줍니다. 바로 자살자의 92%는 가족에게 자살 신호를 보냈지만 가족 중 21.4%만이 이를 알아챘습니다. 마음 아픈 아이들이 보내는 신호를 인식하는게 쉽지 않다는 얘깁니다. 때문에 한 가정의 문제로만 볼게 아니라 학교와 사회가 함께 아이들의 신호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제주양씨 춘영(향년 96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드립니다.
아들 정문현, 며느리 유해봉, 손자 정성훈, 성학, 손녀 정혜심, 경아, 수아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경주김공 상선(향년 86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드립니다.
아들 김용수, 며느리 이경희, 완수, 이정임, 용호, 강윤경, 딸 김경미, 경희, 사위 김기윤, 진성, 이성희

토지주(후손)를 찾습니다
성명: 강두현
주소(본적): 화북일동 4207
선출리, 회천동 일원에 강두현氏의 사정토지(분묘)가 있으나 후손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913년 8월 사정토지 등록
-2014년, 2017년 후손들이 주소 등록 진행
-現 미등기토지
문의: 오세형 010-5531-5538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신에 이룬 성과 중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클
미식식품의학원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http://www.baekdoraji.com
주소지 선출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립JK약백도라지연구소

건계분판매
친환경 및 HACCP인증 농장
\*발효기(포스트)로 열처리 발효시켜 원전 건조된 친환경 계분을 판매합니다.
\*펠렛으로도 가능합니다.
- 제주 전지역 배송가능 -
제주초특농농조합법인
문의: 010-3693-2000, 010-2696-9876

하귀농협장레식당
아름다운 마미막 동경
하귀농협장레식당
제주시 매월을 애초로 405 (노형에서 10분 거리)
노형에서 10분 거리
독립적인 5개의 고품격 분할실
독립적인 상주휴게실 및 편의시설
하귀농협직영 합리적인 장례비용
동시주차 500여대의 넓은 주차장
타 장례식장 대비 저렴한 식비 (6찬제공)
하귀농협 하나로마트 직영점 운영
노형에서 10분 거리 (대중교통이용가능)
24시간 무/료/상/담/실/시 24시간/대기
T.798-8800

주간농업농촌소식
2020년 농업미생물 공급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2시간의 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동부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미생물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농업인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교육일시: 2019. 12. 17.(1차), 18.(2차) 14:00 ~ 16:00
□ 교육장소
○ 2019. 12. 17.(화): 표선농협 교육장
○ 2019. 12. 18.(수): 동부농업기술센터 사회농업인교육장
□ 교육인원: 300명
□ 교육대상: 2020년 농업미생물 공급 희망농가
○ 2020년 농업미생물 공급 신청: 2019. 12. 30.까지
관내 농업기술센터
□ 교육신청
○ 동부농업기술센터 발자물팀(☎760-7636) 전화 또는 방문
○ 교육일 현장에서 등록
□ 교육내용: 농업미생물 이해와 활용방법
□ 참고사항: 2020년 농업미생물 배양실 운영 및 활용지침 변경에 따라 공급 희망농가는 2시간 교육 이수해야 함.
□ 상담문의: 동부농업기술센터 발자물팀(☎760-7631-36)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동부농업기술센터 (760-7636)